

# “보훈이 국민 통합의 토대가 되도록 힘껏 일하겠다”

최치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이재명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고급단 2급)으로 임명됐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인 권오을 장관을 보좌하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대한 의료 접근성 강화, 보상 현실화, 그리고 이념과 지역을 초월한 국민 통합이라는 핵심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국가보훈처 장관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보훈 의료의 중요성을 깊이 인

최치현 전 청와대행정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임명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이재명 정부 보훈 기조 실현  
청와대·보훈처·지방정부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로 합류

식하고, 보훈의료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보훈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행 경험을 쌓았다. 또,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실무 총괄했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국정과제 조율에 참여했고, 광

산구 열린민원실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선임팀장으로 활동하며, 당시 위원장이었던 권오을 현 장관과 함께 안동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전역에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오을 장관은 “최치현 정책보좌관은 청와대, 보훈처, 지방정부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국



최치현

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 보훈 정책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보좌관은 “이재명 정부의 보훈 기조에 맞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보훈이 국민 통합의 든든한 토대가 되도록 힘껏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행 기자



보성군,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하반기 운영 재개

## 찾아가는 밥상, 어르신 미소로 물드는 마을

보성군은 지난 3일 조성면 신촌경로당을 시작으로, 무더위로 잠시 중단됐던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밥차’ 하반기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초고령화로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보성군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단순한 급식을 넘어 어르신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해 영양 불균형 해소와 심리적 위안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19회를 운영해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

었다. 하반기에는 11개 경로당을 찾아가 매주 1~2회 운영하며, 오는 11월까지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사랑의 밥차’는 △치매 예방 교육, △마음 상담 서비스, △이동 빨래방, △실버 음 약교실 등 보건소·복지기관과 협력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랑의 밥차가 어르신들께 단순한 식사가 아닌 위로와 웃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나누시, ‘찾아가는 상담’ 호평

관내 6개 유관기관, 시청 전 직원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 사업

전라남도 나누시(시장 윤병태)가 유관기관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나누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유관기관 6개소(한국문화예술회관, 포스코이앤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지개 라이프’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 라이프’는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관계 스트레스 및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원예치료, 음악·도박·마약 등 중독예방 교육, 우울증·알코올 자가 선별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장 직장을 찾아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나누시청 직원(151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 캠페인’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가 나누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1:1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더불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혈관 건강 측정, 우울증 및 알코올 자가 선별검사,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1:1 상담을 연계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호평했다.



시는 청장년기는 여러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낮아 조기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용근 나누시보건소장은 “직장인들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라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나누시정신건강복지센터(☎ 339-48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 고흥군, 농촌왕진버스로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 특출

올해 6번째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농촌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큰 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팔영농협에서 운영한 ‘농촌왕진버스’가 영남·점암·과역면 주민 400여 명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을 위해 군과 지역 농협이 협력해 총 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운영된 ‘농촌 왕진버스’는

고흥농협을 시작으로 녹동·두원·홍양·풍양농협에 이어 이번 팔영농협까지 총 여섯 차례 진행됐다. 과역면 참살이조가비촌에서 진행된 이번 진료는 내과, 양한방, 안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녹동현대병원이 협력 병원으로 참여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과 교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해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공영민 군수는 “농촌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

해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 동구 “백두산 일대 역사의 현장을 느끼다”

관내 중학생 등 66명, 5일간 해외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최근 관내 6개 중학교 학생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참여한 ‘백두산 일대 국제 인문탐방’(이하 백두산 인문탐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백두산 인문탐방은 봉오동 전투 전적지, 윤동주 시인 생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 등을 포함한 일정으로, 학생들이 직접 국외 독립운동 근거지를 찾아가 독립운동의 정신을 느끼고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탐방에는 관내 6개 중학교 학생, 인솔 교사, 동구청 등 관계자 총 66명이 참여했다.

주요 탐방지는 ▲발해광장 ▲두만강 강변공원 ▲봉오동 전적지 ▲왕흥창 거리 ▲윤정 만세 운동 3·13 의사 ▲윤동주 시인 생가 ▲하얼빈 송하강 ▲안중근 목

비 등이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길의 핫플인 왕흥창 거리에서 중국어 간판만큼이나 많은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는 게 신기했다”, “윤동주 시인 생가에서 서시를 낭송할 때 마음이 몽클됐다”, “우리 예전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인 하얼빈역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속상하다” 등의 다양한 소감을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백두산 인문탐방을 통해 항일투쟁 등 독립 역사를 배우고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인문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